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포커스 전북경제



전라북도

2013년 5월 10일

제170호

최근 경제 동향

광공업 생산동향

3월중 광공업생산지수 : 101.8
3월중 생산자제품출하 지수 : 106.0
3월중 생산자제품재고 지수 : 113.9

□ 생산

도내 광공업생산은 수출 관련 중공업체들의 감소 축소(2월 -15.6% → 3월 -8.8%)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공업 부진 확대로 회복이 미흡(-7.8%)하였다. 업종별로는 의약품(13.6%)과 금속 가공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34.1%), 자동차(-17.2%), 기계장비 관련 업종이 감소하였다.

< 도내 주요 제조업 생산 활동 증감률 추이 >
(단위: %)

	2012년			2013년	
	연중	3월	1-3월	3월	1-3월
광공업 생산	-4.1	-0.9	0.9	-7.8	-4.8
(식료품)	4.8	7.6	5.5	-9.8	-0.6
(화학제품)	4.9	-4.2	3.7	3.6	0.5
(비금속광물)	-8.4	-8.9	-2.3	-7.3	-9.2
(1차금속)	-2.7	0.9	5.5	3.0	-1.2
(금속가공)	-6.2	-9.8	-15.4	11.2	1.4
(전자부품,컴퓨터)	-32.7	15.0	2.7	-34.1	-38.8
(기계장비)	-4.4	4.1	5.5	-17.1	-10.6
(자동차)	-8.3	-2.7	0.5	-17.2	-9.1
< 전국 생산 >	<0.8>	<0.5>	<3.6>	<-3.0>	<-1.7>
출하	-3.0	-2.1	1.6	-7.0	-6.5
재고	3.7	3.1	2.7	10.4	9.7

기준 : 전년 동기대비, 자료 : KOSIS, 통계청

향후 도내 생산은 내수는 물론 해외 수출 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간에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경기부양이 본격화되고 있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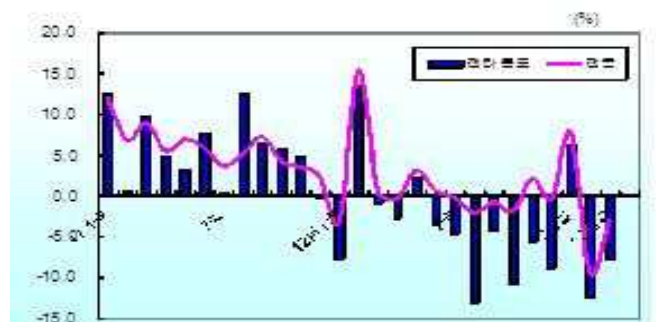
□ 출하

3월중 도내 생산자 제품출하증가율은 의복 및 모피(29.5%), 금속가공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3%), 전자부품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7.0% 감소하였다.

□ 재고

자동차(-9.7%)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52.3%) 1차 금속(35.0%) 업종 중심으로 재고 확대가 3월중 도내 재고 증가율을 확대시켰으나 제조업재고율 지수(재고지수/출하지수)는 115.3으로 전월(2월 115.5)에 비해 소폭 진정되었다.

< 광공업 생산 증가율 추이 >



기준 : 전년 동월대비

종합경기

- 3월중 전북 동행 경기종합지수 : 104.5
- 전월대비 0.1% 상승
- 3월중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 97.3
- 전월과 동일

3월중 전북 동행지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감소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광공업 생산 활동 상승세 반전에 힘입어 전월 대비 0.1% 상승한 104.5로 확대되었다. 동행지수가 2개월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출 제조업체들의 조업 안정에 기인한다. 다만, 내수회복 미흡이 경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8개 구성 지표 수출액(6.3%), 전력소비량, 광공업 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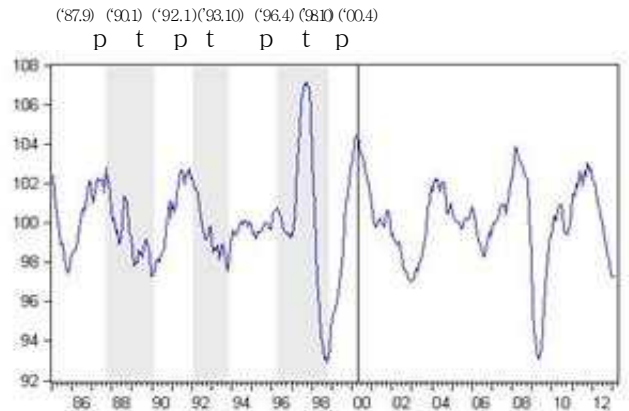
< 전북 동행지수 및 순환 변동치 동향 >

(2005 = 100, %, 포인트)

구분	'12.10월	11월	12월	'13.1월 ^P	2월 ^P	3월 ^P
동행종합지수	105.1	104.7	104.2	104.2	104.4	104.5
전월비	-0.4	-0.4	-0.4	-0.1	0.2	0.1
순환변동치	98.2	97.6	97.4	97.2	97.3	97.3
전월차	-0.2	-0.6	-0.2	-0.2	0.1	0.0

3월중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과 동일한 97.3으로 나타났다.

< 전북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의 전북의 경기순환기준일

경기침체 탈피 기대와 달리 정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위축된 소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회복이 부진한 것에 기인한다. 향후 도내 종합 경기흐름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이 미약하여 단기간에 큰 폭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전북 동행지수 구성지표 증감률 >

(전월비, %)

구성지표	표준화인자	'12.11월	12월	13.1월 ^P	2월 ^P	3월 ^P
전력소비량	1.0836	-3.3	3.6	0.5	-1.5	2.6
방광업생산지수	0.3598	0.0	0.6	0.8	0.2	0.0
광공업생산지수	1.4935	3.4	-2.7	6.0	-7.1	0.7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8245	3.1	1.2	-11.7	13.7	-4.0
어음교환금액	1.9547	-9.7	1.2	-7.1	1.2	-4.6
생산자출하자수	1.1214	2.7	-1.9	3.3	-2.3	-1.8
수출액	2.6338	20.8	-8.4	-1.9	10.8	6.3
수입액	1.9728	-1.9	-3.1	8.9	-5.0	-2.7

주 1) 월별증감률 : 각 구성변수의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원계열의 전월비와 차이 상존

2) 표준화인자는 구성 지표 증감률의 전 기간에 대한 표준편차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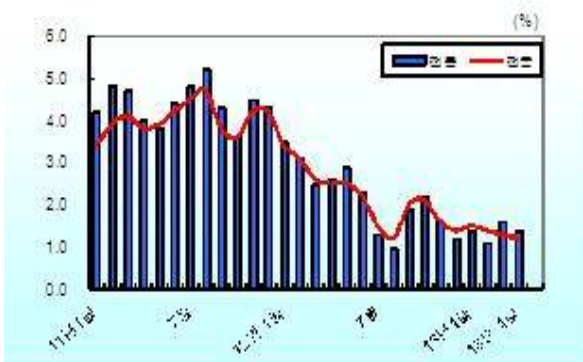
4월중 전북 소비자물가지수 : 107.9

- 전월대비 0.2%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

4월중 전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에 그치는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가격은 물론 상품가격 상승률(1.0%)이 동시에 하향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향후 도내 소비자물가는 소비 위축과 함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당국의 물가관리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지역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남원지역이 전년 동월대비 0.5%에 그치면서 가장 낮으며 전주(1.4%), 군산(1.3%)지역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 기준 : 전년 동월대비

기업경기

제조업 4월 업황 BSI : 76

5월 업황 전망 BSI : 81

비제조업 4월 업황 BSI : 76

5월 업황 전망 BSI : 79

< 한국은행 전북본부 >

4월중 전북 제조업업황BSI는 전월대비 12pt 증가한 76으로 확대되었으며 비제조업BSI는 8pt 증가한 76로 확대되었다. 4월중 제조업은 물론 비제조업 업황지수가 여전히 심리상황 판단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으나 그동안 감소 추세로 부터 탈피하는 등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기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4월중 도내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고 있는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내수부진(26.9%), 불확실한 경제상황(19.3%), 인력난 인건비 상승(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월중 도내 제조업체들이 전망하고 있는 제조업업황BSI은 전월대비 14pt 증가한 81로 확대되었다. 비제조업 역시 전월대비 6pt 증가한 79로 확대되면서 전월의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로 체감 경기 회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 제 단 신

□ 참살이 실습터 교육생 모집

- 기간 : 5. 6(월) ~ 5. 31(금)
- 교육 : 6. 7 ~ 10. 11
- 교육 분야 : 네일아티스트 등 4개 과정(이론 및 실습)
- 모집 인원 : 100명(네일아티스트 26, 두피관리사 24, 퍼스널헬스트레이너 25, 푸드코디네이터 25)
- 교육기관 : 전주비전대(주관), 전주대

□ 『전북협동조합 어울림』 한마당

- 일시/장소 : 5. 6(월) / 도청 회의실
- 참석 : 신규 협동조합 및 관계자 등 150여명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협약 및 신·구 협동조합, 지원기관과 멘토링 협약식 체결
 - 재능 기부단 소개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전통시장 애용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일시/장소 : 5. 9(목) / 전주동물원
- 참여인원 : 도내 어린이집 유아 및 초등학생 등 1,000여명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주제 그림그리기 및 시상 등

□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 전문교육

- 기간/장소 : 5. 8(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대상 : 도내 소상공인 및 신규 창업
- 주요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 등 세무 관련 교육

□ 지역소비자행정 전문가 실무 교육

- 일시/장소 : 5. 9(목)/(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3층
- 참석 : 시군 담당자, 소비자단체 실무자, 물가모니터 등 50명
- 주요내용 : 개정 민법 내용 및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등

□ 소비자보호교육 실시

- 일시/장소 : 5. 10(금) / 장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방문 지도교사 등
- 주요내용 : 소비생활 기초 지식, 소비자 피해 예방요령 등

□ 희망창업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 일시/장소 : 5. 12(일)/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
- 참석 : 경제통상진흥원, 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친선경기(배구·족구·단체 줄넘기 등), 행운권 추첨 등

경제용어 해설

그림자 금융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 상품을 뜻합니다. 그림자라는 수식어는 그림자 금융이 금융의 본래 모습과 유사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게 되었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지요.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으로는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 헤지펀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자금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취급하는 금융 상품이 은행예금보다 위험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MF에 가입한 투자자는 은행예금처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금필요시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예금은 5,000만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만 MMF는

원금지급 보장이 없습니다. 즉, 자산운용사가 손실을 보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림자 금융은 자금 중개 경로가 복잡합니다. 은행예금은 자금 공급자인 예금주와 자금 수요자인 대출자 사이에 자금 중계가 이루어지는 반면, MMF는 최초의 자금 공급자인 MMF 투자자가 운용회사에 돈을 맡기면, 운용회사는 기업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기업어음에 투자한 자금은 다시 최종 자금 수요자인 기업에 전해집니다. 은행이 예금-대출 2단계인 것과 달리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규제가 적습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건전성 관리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그림자 금융은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을 보장할 의무가 없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규제 수준도 낮습니다.

